

진도 시금치 '으뜸초' 본격 출하...8kg 1상자 11만원

대파·배추 등 노지채소 대체작목으로 육성 전량 계약재배 통해 우량묘 정식 품질관리

진도군은 대파, 배추 등 노지채소 대체작목인 시금치 '으뜸초'가 본격 출하되면서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금치는 비타민, 철분, 식이섬유 등 각종 영양 성분이 함유돼 성장기 아이들, 여성, 임산부, 노인 등 모두에게 유익하고 나물 무침, 국거리 등 다양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에 출하한 1상자 8kg에 11만원으로 전국 최고 가격을 낙찰받아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대형 납품업체인 이마트 등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진도군의 시금치 재배면적은 지난해 12월까지 25ha였으나 올해 상반기 계약면적은 40ha

에 달했다.

진도산 시금치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전량 계약재배를 통해 사전 육묘한 우량묘를 정식해 꾸준한 품질관리를 한 결과다.

'으뜸초'란 이름으로 출하되는 진도산 시금치는 서남해안의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해양성 기후와 해풍을 맞고 자라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진도봄동'처럼 잎이 두껍고 맛이 달아 상품성이 최고다.

진도군은 2500ha에 이르는 대파, 배추의 가격 불안 해소를 위해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시금치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금치 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또한 비닐 수거 노동력 100% 절감을 위해 생분해성 피복재료를 지원하는 등 농업인들이 최고품질의 시금치 생산에 주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 '으뜸초'를 전국 제일의 시금치로 육성해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해남군,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호응 뜨겁다

이자 2%(최대 100만원)···최장 5년

해남군의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이 뜨겁다.

해남군은 결혼 후 신혼집을 장만하는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해남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폭넓은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7년차에 접어드는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387쌍의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았으며, 2023년부터는 청년 1인가구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신혼부부와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구입 및 신축, 전세자금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잔액의 이자 2%(최대 100만원)를 최장 5년간 지원한다.

해남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49세 이하의 청년 및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소득기준으로는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 청년 1인가구는 본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정이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급여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기타 국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제외된다.

해남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해남=기동취재본부



강진원 군수와 강진군 소상공인회원들이 6일 반값다짐 선포 후 거리 가두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강진군소상공인 앞장선다

강진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동삼) 회원들은 지난 6일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의 성공을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소상공인이 앞장 선다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소상공인이 앞장 선다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의지를 모아 '반값 강진 관광 성공 다짐대회'와 함께 거리 캠페인을 했다. 이 자리에는 강진원 군수가 참여해 격려했다.

캠페인은 강진군소상공인회, 강진상가번영회, 강진시장상인회, 외식업지부 회원 등 100여 명이 강진읍극장동에 모여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소상공인이 실천해야 할 과제를 각 상인회 회장들이 나와 낭독하고 상인회 회원들은 함께 구호를 외치며 의지를 다졌다.

이어 '진절, 청결, 정갈제, 바가지요금 근절'이라고 쓰인 미니현수막과 어깨띠를 매고 극장동에서 강진터미널까지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김동삼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반값 강진 관광의 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마운 시책으로, 누구보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서 관광객을 맞이해야 한다"며 진절, 청결, 정갈제,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2024 반값 가족 여행은 타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족 단위의 관광객에게 강진여행비용의 50%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시책이다. 한 가족당 최소 5만원 이상 소비 시 2만5000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군 "설 명절 안전운전으로 가족 행복 지키세요"

장흥군은 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장흥 군민회관 앞 오거리에서 귀성길 안전운전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경찰서, 소방서,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단체 관계자 50여 명도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명절 연휴기간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발생하는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 주의, 전 좌석 안전띠 생활화, 화재예방 등을 집중 홍보했다.

장흥터미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방한용품 배부 와 동시 화재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군민안전보험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설 연휴 안전운전이 가족들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다"며 "귀성길 운전 중 졸음이 오면 졸음쉼터를 활용하고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실천해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완도에 전국 지자체 첫 해수 방사능 감시시스템 설치

수산물 방사능·중금속 등 안전성 검사

완도에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해수 방사능 연속 감시시스템이 설치됐다.

완도군은 7일 완도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산면 여서리에 해수 방사능 연속 감시시스템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완도해역의 방사능 정보를 전남도와 완도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해수 방사능 연속 감시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완도군은 또 전복과 광어, 다시마 등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출하 시기에 맞춰 방사능, 중금속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설 명절 전 제수용 수

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수산물을 공급하고 여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섬진흥원